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보도자료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일시 2024. 4. 11.(목) 배포 2024. 4. 11.(목)

동해해수청, 항로표지시설 주·야간 시인성 강화

- 항로표지시설 구조물 재도장, 아야진 동방등표 LED조명 설치 등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항로표지시설의 주·야간 시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등대, 등표와 같은 항로표지시설은 야간에 비치는 불빛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구조물의 색상으로 항행 경로를 표시하여 선박을 안전한 항로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동해해수청은 항로표지시설의 주간 시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풍, 월파 등으로 탈색된 항로표지시설 17개소의 구조물을 재도장할 예정이다.

또한, 야간에 항행하는 선박의 식별성 저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상 항로표지시설의 충돌 사고 예방 및 아야진 어촌계 및 마을번영회의 건의에 따라, 강원 고성군의 아야진항 북방 해역에 위치한 아야진 동방등표의 야간 시인성 강화를 위한 LED 조명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항로표지시설 관리를 통하여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효율적인 운항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김동식 (033-520-6271)
		담당자	주무관	김남진 (033-520-627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사진대지**

아야진 동방등표 전경